다산포럼

남영신

백두산에서 본 무궁화 한 송이

이른바 '백두산 탐방단'에 끼어,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백두산까지, 그리고 백두산에서 두만강을 따라 두만강 철도가 보이는 훈춘의 방천까지 8박9일의 답사를 하고 돌아왔다.

9월4일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단동으로 출발하여 15시간 만에 단동항에 도착하였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단동항과 신의주항이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도 단동항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신의주는 적막이 감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와 사진으로 알려진 터였다.

단동항에서 단동시로 가는 도중에 도로 옆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그게 북한과 중국의 경계라는 것이다. 압록강을 건넌 지점까지 중국 땅과 맞닿아 있는 북한 땅이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단동시에서 10여 분정도 압록강을 거슬러 백두산 쪽으로 달려간 지점에 '호산산성'이라는 제법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중심으로 좌우로 상당히 드넓은 평야를 가로질러 북한 땅이 철조망 건너로 펼쳐져 있고, 들판 곳곳에 북한 초소와 군인인 듯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압록강의 물줄기가 바뀌어서 북한 땅과 중국 땅이 이처럼 중국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게 되었다는데, 퍽 신기하고 놀라웠다.

고구려 유적지인 집안(集安)에서 하루 묵으면서 두루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한 뒤에 다시 압록강을 거슬러 백두산을 향해 달려가는데, 중국의 임강 부근 압록강을 지나는 중에 압록강하구를 향해 내려가는 북한의 뗏목을 발견했다. 과거에 남한강 정선에서 한강 뚝섬까지 뗏목을 운전하면서 숱한 고생을 했다는 송문옥 선생의 구술을 들었지만, 실제 압록강에서 뗏목을 처음 보고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압록강 건너 산을 보니 모든 산이 산꼭대기까지 벗겨지고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북한의 산 모습이 내 눈에 비쳐 들어온다.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저렇게 산꼭대기 땅까지 개간해서 결국 산사태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해설을 들으면서, 뗏목, 민둥산, 김일성, 북한 경제 등등 결코 가볍지 않은 상념들로 머리가 혼란스러워짐을 느꼈다.

북한의 혜산시와 마주 보고 있는 장백현에 들어서니 갑자기 한글 간판이 나타났다. 이곳이 조선족 자치현이라서 중국어와 한국어 간판을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이 한글을 그들의 글자로 쓰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중국 땅에서 한글을 만나게 되니 한글은 이미 세계의 글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용자가 조선족이든 다른 종족이든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한글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미 한글은 세계의 글자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이 우리 문화를 간직하며 살고 있는 점을 너무 가볍게(세계적 관점이 아닌 우리만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였다.

백두산은 장백현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었다. 처음 백두산을 오르는 길이어서 무척 흥분되었다. 오른편에 길을 따라서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 옆으로 개울이 흐르는데 그 개울이 북한 땅이라 한다. 순간, '아 백두산이 북한 땅이지'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쳤다. 중국을 거쳐서 가다 보니 백두산이 우리 산이라고 생각을 깜박 잊은 모양이다. 이윽고 백두산 봉우리에 닿아, 걸어서 천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길 오른쪽에 또 철도망이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에는 '월경 금지' 또는 '엄금 월경'이라는 뜻의 중국어 표지판도 붙어 있었다. 철조망은 천지 바로 앞까지 쳐져 있고, 맨 끝에 여기가 중국과 조선의 국경임을 나타내는 표지석이 서 있었다.

맑고 푸른 천지를 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내 머리 속에서는 여전히 국경을 알리는 이 철조망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해설에 따르면, 1945년 일본이 패전으로 도망간 후 중국이 일방적으로 '백두산정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두만강 발원지와 압록강 발원지를 일직선으로 그어 국경선을 책정하고 국경수비대를 이 경계선을 따라서 배치했다고 한다. 그 후로 중국의 모든 지도가 백두산을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이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하고 인도와 국경 분쟁을 일으키던 시점에 김일성이 국경 문제를 제기하여 주은래 당시 수상과 협상한 끝에 백두산의 천지를 양분하는 새로운 국경선을 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 협상이 없었다면 지금 백두산은 송두리째 중국의 영토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랬다면 내가 백두산에서 국경선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니, 내 머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현실을 따라가기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협상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주선한 사람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부주석이던 주덕해 선생이었는데 이분이 문화대혁명 때에 바로 이 협상의 주모자로서 중국 영토를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옥사했다고 한다. 주덕해 선생께 뒤늦게나마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면서, 기회가 온다면 그의 무덤에 모진 추위에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두산솜다리 한 송이를 바치고 싶다.

〈국어문화운동본부 이사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문인

따뜻하고 검소한 추석나기

추석은 '예기'의 조춘일(朝春日) 추석월(秋夕月)에서 나온 것으로 중추절(仲秋節)이라고 하는 것도 가을을 초추·중추·종추 3달로 나누어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어 있어 붙은 이름이다.

햇곡식과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이웃과 서로 나눠 먹으며 즐겁게 지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 나눠먹었다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 말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올 추석명절을 마냥 즐거워하거 할 수 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경제는 점차 회복세에 있으나, 민간 고용 부진으로 일자리 창출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도 감소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라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시민들을 막연한 두려움 앞에 놓이게 하고, 10월과 11월 중에 크게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한 예방약품 확보 등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때다.

그간 시는 신종플루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면서 보건소의 기능보완과 함께, 거점병원과 약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선도적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신종플루 확산 인원이 아주 적은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재난·비상진료·물가관리·공직기강 확립 등 분야별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전반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직자가 먼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복지시설을 위문하고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아동 결식가능성에 대비하여 무료급식소간 당번제를 통해 무료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정해 체불예방활동 및 미해결사업장 현장지도를 강화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연휴기간 중 재난예방을 위해 재래상가 등 화재 취약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응급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환자 발생시 119구급대를 통한 비상수송과 진료체계도 유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직자가 검소한 명절 보내기 운동에 솔선하여 참여토록 하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전개와 전 직원에 대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청탁성 선물이나 금품 등의 수수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옛 말의 의미가 되살아나, 서민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중산층은 두터워져 검소하면서도 넘쳐났던 남도 민심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기고

배병채

녹색성장 교육에 큰 관심을

신종플루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만여 명을 넘었다는 최근 보도는 우리를 매우 긴장시키고 있다.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는 그 전파 속도 또한 매우 빨라 감염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플루 확산과 함께 사람들 사이의 오랜 관행들이 점차 사라져 가는 모습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악수를 들 수 있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악수의 고향인 영국에서는 악수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한다. 악수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독감이나 기생충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 발표도 있다 하니 신종플루의 위험성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1수칙으로 '자주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성인들의 경우엔 지나친 음주 자제와 술잔 돌리지 않기 등 신종플루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제 신종플루의 유행은 사람들 사이의 정감어린 문화마저도 바꿔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로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신종플루는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인간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전염병이 창궐했었지만, 오늘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 우리가 애용하는 자동차가 뿜어내는 일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각종 재해와 재난을 유발하고 있다.

신종플루를 비롯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각종 전염병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원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구상에 거리가 소멸되고 국경 없는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환경문제나 질병과 같은 여러 재난과 위기들이 초국가적, 초국민적 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 물자, 에너지 절약 등 '전남 에코 3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무심기를 통한 녹색학교 가꾸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겠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작게는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에티켓 지키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크게는 물자와 자원을 아끼는 녹색성장 교육으로 인류가 공존 공영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학생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정신적 재무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 실천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구례군교육청 교육장〉

사설

'청년실업 대란' 이대로 방치할건가

최근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는데 청년실업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병인 20대와 주축 계층인 30대 취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청년층의 안정고용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0대와 30대의 취업자는 952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80만2천명에 비해 27만6천명(2.8%) 감소했다. 이 같은 취업자 수는 1990년 4월 944만4천명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이들 취업자는 지난해 6월 1천5만명을 끝으로 14개월째 1천만명을 밑돌면서 불과 1년여 만에 5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신규채용 부진으로 급격히 나빠졌다.

얼마 전에는 대학 재학생 10명 중 8명은 휴학하거나 휴학을 고려 중이란 통계도 있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 소위 니트(NEET)족이 113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문제는 청년층의 향후 고용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하지만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주는 추세다.

놀고먹는 백수 청년층의 확대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다.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미래를 움직일 중추인 20~30대의 취업은 경제, 사회의 건전성 측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청년실업 대란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편한 일만 찾다가 '팔팔한 60대'에 밀리는 고학력 청년층의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도 물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차질없이 시행돼야

내년부터 시행될 장애인 고교생 및 만 5세 유치원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준비 상태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의무교육의 파행이 우려된다. 지난 8월 기준 광주지역 전체 529개 유치원·초·중·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157곳(29.6%)에 그쳤으며 유치원과 고교의 설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중학교 247곳 중 74곳, 고등학교 154곳 중 33곳 등 전체 학교 대비 24.3%에 불과하다. 특히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지지부진해 의무교육 확대시행 첫해를 맞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3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 1년이 넘도록 유명무실한 법률로 전락한데는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새로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며, 장애인 고등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경제 사정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졌으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해 장애와 저학력이라는 이유로 취업과 승진기회, 임금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법률에 보장된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가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특수학급 설치를 늘리고 학교와 학부모 등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창시절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장애 학생에게는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고, 비장애 학생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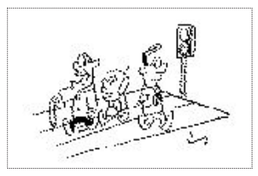
無等鼓

우측통행

'사람은 왼쪽, 차는 오른쪽'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생활 규칙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서면 좌측통행을 당연한 사회규범으로 여기게 됐다.

그러나 좌측통행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내년 7월 1일부터 우측통행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현행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 원칙 전환을 발표했다. 이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마주보게 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나온 방침이다.

즉 좌측통행을 하게 되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와 마주보고 걷게 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와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다.

사실 우리나라 통행방법은 애초 우측통행이었다. 1905년 대한제국에서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에 의해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했다. 이후 1946년 미군정이 차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했으나 사람의 통행방법은 그대로 두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61년 12월31일 도로교통법 제정 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법 제8조 제2항)'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좌측통행이 굳어진 것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생활의 법칙'으로 자리 잡은 좌측통행이 사라질 처지에 놓이면서 속속 우측통행이 시범 도입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우측통행으로 바뀌었고, 광주지하철역 시설물에서도 내달 1일부터 기존의 통행방향이 바뀐다.

우측통행을 앞두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어색함'이 싫어 걱정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리 크게 마음 쓸 일은 아닐 듯싶다. 사람은 항상 '적응의 동물'이니까….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

음식점 세트메뉴, 영양 부족하고 비만 부추겨

비만이 가져다주는 성인병이 심각한 지경이다. 그래서 음식세트 메뉴의 문제점들을 독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

먼저, 햄버거와 콜라를 함께 먹을 경우, 햄버거는 칼로리가 높았지만 영양이 낮은데 여기에 콜라를 함께 먹으면 콜라의 인과 탄산이 햄버거에 있는 소량의 칼슘과 무기질마저 몸 밖으로 배출해서 뼈를 약하게 한다. 따라서 차라리 햄버거에는 콜라보다 주스를 마시는 것이 낫다. 또, 삼겹살을 먹고 물 냉면을 식사로 하는 것은 어떨까? 물 냉면 한 그릇의 열량은 407Kcal로 330kcal인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은 고열량이므로 고기를 먹은 뒤에는 된장찌개에 밥을 조금 먹는 편이 낫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버섯을 함께 먹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 사소한듯하지만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꼭 필요하다.

▲이은숙·광주시 서구 광천동

학생들 의타심만 키우는 '부적' 판매 중단돼야

문방구에서 돌아온 아이의 손을 보니 준비물뿐아니라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켓용 책 같은 게 쥐어져 있었다. 펼쳐 봤더니 그게 다름 아닌 아이들용 부적이라는 것이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 난데없이 부적바람이 불어 난리란다. 아이들까지 부적타령이라니 할 말이 없다. 스티커 모양의 이 부적은 붉은 글씨로 기기묘묘하게 만들어졌다. 부적 내용은 성적 올리는 부적, 애인 구하는 부적, 그리고 재물 생기는 부적까지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이걸 사서 주머니나 필통에 넣고 다닌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대입 합격 부적은 물론이고 경시대회나 기말고사 같은 때에 책상에 붙여 놓는 부적도 있다고 한다. 노력보다는 운과 확률적 당첨수만 부추기고 미신적 요소만 키우는 부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오수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